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700호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보육교사 아동학대 증가 불구 인성교육 '뒷전'

보육교사 22만9548명 중 최근 2년간 1만1000명만 인성교육 이수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인성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육진흥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보육교사는 1만1,000명으로 전체 보육교사 23만 명의 4.8%에 불과했다.

최근 2년간 한국보육진흥원의 인성교육 계획인원은 1만1,000명으로 현재의 교육계획대로라면 전체 보육교사가 한자리씩 인성교육에 참여하는데 38년이나 걸린다.

반면 보육교사가 가해자인 아동학대 사건은 2012년 110건에서 2016년 56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사건이 6,403건에서 1만8,573건으로

2.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보육현장의 아동학대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부실한 인성교육에 있다.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교사가 여전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의 1일 평균근로시간은 2012년 9시간28분에서 2015년 9시간 36분으로 8분증가한 반면, 휴식시간은 26분에서 18분으로 8분 단축됐다.

또한 초과근무가 있다는 보육교사의 비율은 2009년 50.1%에서 2015년 73.1%로 무려 23%p나 급증했다.

보육교사의 인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인성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보육교사와 영유아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인성 함양 지원을 위한 「마음성장 프로젝트」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사전에 인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 60시간(서울시 기준)의 직무연수 이외에 4시간의 인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인성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인성함양 및 업무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지면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유치원 교사처럼 보육교사도

23~24일 중부 중심 눈 예상

기상청이 23~24일 중부 중심 눈이 예상된다며 수험생 교통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수능일인 23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내륙, 경북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23일 아침에는 서울·경기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또한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수험생들의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24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에 경기서해안과 충청도, 전북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경상내륙으로 확대되고 밤에 대부분 고지했다.

약 5km 상공의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서해상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24일 새벽부터 아침에는 지상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성이 높고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그 밖의 중부(강원동해안 제외), 전라도, 경북내륙, 경남북서내륙, 서해5도: 1~5cm가 예상된다.

한편 25일 오후~26일에는 다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강원산지 비 또는 눈)가 예상된다. 박봉관 기자



대전시,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골고루 잘사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주제로 전시관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22일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와 지역발전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전공공기관장, 기업,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현대 행의 안내를 받으며 대전광역시 전시관을 찾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시아-유럽 교육협력 강화.. '서울선언' 채택

제6차 아셈 교육장관 회의서 교육협력 10년 비전 제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무크(MOOC·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공동개발 등 교육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아셈·ASEM) 교육장관회의'에서 참가자들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아시아와 유럽의 교육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21일 서울서 개막한 아셈 교육장관회의는 '다음 10년을 위한 협력·공동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실천까지'라는 주제로 스위스·아일랜드·라오스·중국·일본 등 42개 회원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등 11개 기구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21일에는 아일랜드·필리핀·스위스·태국 등 4개국 장·차관이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미래 ASEM 교육협력'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다.

22일에는 4개국 장·차관(슬로바키아 장관, 인도네시아 장관, 루마니아 차관, 중국 차관)의 발표를 포함해 두 번째 의제인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미래 아셈(ASEM) 교육 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기평생교육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 아셈 뉴오(ASEM-DUO)사무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과 같은 관계기관을 활용한 상설 전시관을 마련해 한국의 활발한 국제 교육협력을 사업을 홍보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장관회의가 지난 10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온 아셈 교육협력의 향후 10년의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장관회의가 10년 뒤에도 성공적인 회의로 인정받고 회자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시아-유럽 간 무크(MOOC)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셈 무크 아시아-유럽 협력'에 대해

주진해 아시아-유럽 간 지속적 협력 체널을 구축하는 등 아셈(ASEM) 내에서 한국 교육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가 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회의 개회를 계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기평생교육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 아셈 뉴오(ASEM-DUO)사무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과 같은 관계기관을 활용한 상설 전시관을 마련해 한국의 활발한 국제 교육협력을 사업을 홍보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장관회의가 지난 10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온 아셈 교육협력의 향후 10년의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장관회의가 10년 뒤에도 성공적인 회의로 인정받고 회자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협력을 강화하고자 아셈 무크 아시아-유럽 협력·공동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실천까지'라는 주제로 스위스·아일랜드·라오스·중국·일본 등 42개 회원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등 11개 기구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21일에는 아일랜드·필리핀·스위스·태국 등 4개국

장·차관이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미래 ASEM 교육협력'에 대해

김태선 기자

안희정 지사 내년도 예산 확보 총력전

국회 방문···지역 주요 현안사업 예산증액 지원 요청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22일 국회를 다시 찾았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및 기재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2018년도 충남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그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안 지사를 비롯한 행정부 지사 등 지휘부 및 실국장이 번갈아 국회를 방문, 증액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왔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장항선 복선전철 예타 통과 등 50억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개설 예타 통과 등 26억 △옛 도청사 국가매입 80억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유치 10억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건설 50억 △수도권 전철 연장(독립기념관 터당성 용역 3억의 국회증액을 제안했다.

또 △천안아산KTX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국립서해안 기후대기센터 건립 2억 △자동차체부품 인증시험·기술지원센터 건립 7억 △

충청유교문화원 광역관광개발 57억 등 총 52건, 7438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국회의원에게 지역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종임부처 출향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왔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다.

김정한 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PALE LAGER

CHEERS!
KOREA



정부 보증 우수숙박업소 58% 인증 취소돼

부실 운영·일부 업소에서 아직 카드 결제 안 되고 있어 개선 필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객들에게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숙박시설 인증제도(3-Stay)와 베니키아호텔 체인 사업이 인증 및 가맹 업소의 58%가 취소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 업소에서는 아직도 카드 결제가 안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우수숙박시설로 인증한 3-Stay는 굿스테이 1146개소, 코리아스테이 789개소, 한옥스테이 514개소 등 2,449개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9월 현재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업소는 굿스테이 423개소, 코리아스테이 238개소, 한옥스테이 372개소 등 1033개소였다. 이는 애초 인증을 받은 업소의 42.2%에 해당되는 것으로 57.8% 1416개소는 인증이 취소된 것이다.

취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스테이이다. 퀄리티와 서비스로 구성된 코리아스테이는 연면적 230m² 미만 기준 면적 등 필수인증기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되는데 2011년 이후 인증을 받은 789개 업소 중 69.8%에 달하는 551개 업소가 취소되었다.

취소 사유는 재인증 심사 탈락과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미등록 50%, 자진취소 20%, 폐업 17% 등이다.

2008년 이후 모텔이나 레지던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굿스테이 인증을 받은 1146개 업소 중 63.1%에 달하는 723개 업소도 인증이 취소되었다. 취소 사유는 사후 모니터링 평가 기준 미달 52%, 간접심사 점수 미달 26%, 자진취소 11% 등이다.

전통문화체육이 적합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스테이에는 2013년 이후 인증을 받은 514개 업소 중 27.6% 142개가 취소되었다.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기업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이 57개가 기인 해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영업 28%, 품질기준 미달 11%였다.

이 같은 현상은 자격기준 미달 업소를 미구성이 인증한 데다, 인증 이후에도 품질 수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리아스테이의 경우 애초

부터 인증대상이 아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미등록 업소 108곳이 인증되었다가 뒤늦게 취소되었다. 또한 인증이 취소된 굿스테이와 한옥스테이의 절반, 코리아스테이의 3분의 1은 사후 모니터링 평가 기준 미달되어 인증 후 품질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증 업소 상당수가 부실업소로 전락하자 2014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대대적인 지정 취소를 단행하여 3년 동안 굿스테이 약 500개가 인증 취소되었다.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기업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이 57개가 기인 해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면적 위법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리마인드(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기인한 114개 호텔 중 절반 이다.

특히 전체의 61%가

종합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수요총족률 36.2% 불과

남인순 의원 “중소득·중기술 이상의 일자리 창출해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는 참여희망 노인의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노인 인력개발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총족률 추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수는 129만 명에 달하지만, 노인일자리 수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6만7천명으로 수요총족률은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어르신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보육교사도우미, 지역 아동센터 연계지원, 노노케어 등 수요처가 있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훈련 강화, 사업발굴, 노인 고용기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민간 취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는 노인일자리 수를 2022년까지 80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공익활동 수당을 4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밖근데 정부는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하지 않은 채 공익활동과 재능나눔에 대해 근로 성격의 ‘노인일자리’가 아닌 자원봉사 활동 성격의 ‘노인사회활동’으로 분류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금년 추경예산을 통해 공익활동 수당이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감안, 공익활동을 자원봉사활동 성격의 ‘노인사회활동’에서 다시 근로 성격의 ‘일자리’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금년의 경우 공익활동 33만7,000명은 노인일자리 46만7,000명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능나눔활동 4만 5,000명(9.6%)까지 제외하면, 국가 재정을 통한 노인일자리 지원은 고작 8만5,000명(18.2%)에 불과하다”고 덧붙이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인상하여 노인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이와 별도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3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02%를 기록, 우리나라에는 금년 8월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이러한 고령화속도라면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사회 진입년도가 2026년보다 한 해 빠른 202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정년제 폐지, 정년 연장, 임금 페크제 도입, 재고용제도의 매뉴얼화 등 은퇴시기를 늦추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령자 고용 유지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롭게 고령층으로 들어서는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과 기술 수준이 높아 여러 측면에서 기존 고령층과 이질적이어서,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장년 일자리 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익활동형 위주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중소득·중기술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행복도시 2단계 건설 순항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 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이 대규모 사업들의 잇따른 공사 추진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대전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 건의를 비롯 부사동 보문로 교통정체, 야구경기시 환경이스 파크 교통혼잡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수립, 신호 체계 조정, 운동장 진입로 확장 및 대시민 계통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처리 중에 있다.

김정환 기자

행복도시 2단계 건설 순항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 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이 대규모 사업들의 잇따른 공사 추진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당부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복합편의시설과 금강보행교, 금빛

노을교·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등 총공사비 천억 원 이상의 사업

뿐만 아니라,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대장동(2~1생활권) 통합

주민 공동시설 등의 건축공사 및

광역도로 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

되고 있다.

주요 사업의 세부 추진현황을

보면, 행복청에서 2개 광역도로/부

강역 연결, 공주시 2구간 연결)와

신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및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각각 2월

과 3월, 8월에 착공했고 정부세종

청사 주변의 복합편의시설은 7월

에 제2공사를 시작으로 9월에 제1

공사, 11월에 제3공사를 순차적으

로 착공했다.

또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

사가 11월 착공되었으며, 대장동

(2~1생활권) 통합주민공동시설

및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특허는 지난 8월 8일 등록

된 직무발명에 이어 두 번째 등록

으로,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 인

정을 받은 것이라 의미가 크다.



한밭대학교, 2017 산학협력 FAIR 개막

산학협력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성과공유·확산 도모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가 22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7 한밭대학교 산학협력 Fair(페어)’의 막을 올렸다.

‘산학협력, 세상을 바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 페어는 한 해 동안 한밭대가 선도적으로 펼쳐왔던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의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해 산(産), 학(學), 연(研), 관(官)의 각 산학협력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성과 공유와 확산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UNC+) 육성사업단 등이 주관한다.

이날 개회식에는 한밭대 송하영 총장과 김만구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명예총장인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김택수 대전광역시정부시장, 이인섭 대전총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박천홍 한국기계연구원장, 김태율 CMB대전방송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와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송하영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페어는 한밭대가 2017년 한해 동안 거둔 산학협력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산학협력의 사반세기를 선도해 온 모델대학으로서 그간 다져온 역량과 한밭대만의 저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산학협력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주에너리트 김명기 대표,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이정순 주무관, 한밭대 학생생명공학과 우승한 교수 등 산·학·연·관에서 총 24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2017 한밭대학교 산학협력 FAIR에서는 ▲산학협력 페스티벌 ▲취·창업 페스티벌 ▲창의 페스티벌 ▲전시·체험 30여건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페어 첫날에는 개그맨에서 CEO로 변신한 홍록기 씨의 ‘스타CEO 창업특강’과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에 대한 조정원 작가 초청강연, 산학협력 현황 및 우수사례 발표, 모의면접 콘테스트, 기능성화학소재 산업 네트워크 교류회 등이 열

렸다.

23일에는 대전·충청지역 대학별 창업동아리 MOU, 벤처기업 취업특강,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를 비롯해 산학협력 혁신대회를 통한 대학과 지역업체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Smart All-Se 기업지원 협력 행사’와 창업 축제 한마당 ‘Start Up! Fly Up!’ 등이 개최된다.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에는 우수기업 채용설명회가 예정돼 있고, ‘미래교육페스티벌’을 통해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한밭대의 인재양성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캡스풀디자인 경진대회, RC작품 전시회, 토크 콘서트 등이 열리게 된다.

한편, 주행사장인 체육관에 마련된 30여 곳의 전시·체험 부스에는 한밭대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독일의 지멘스社, 터크社, 대전의 안경렌즈브랜드 ‘오비어스’ 등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화지원, 캡스풀디자인, 취·창업지원, IT 융합인력 양성 등 한밭대만의 창의·혁신·지역친화적인 산학협력과 교육의 성과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정복 기자

대전시 교통문제해결TF 활동 호평

현장행정·소통행정·협업행정 를모델... 해결사역할 톡톡

대전광역시가 운영 중인 ‘교통 문제해결TF’ 활동이 시민과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현장행정·소통행정·협업행정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나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 지역 발전 즉시,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정확한 현장진단과 대책 마련, 신속한 처리로 ‘교통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2일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복합 교통민원이나 심각한 교통불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합적인 처리절차와 시간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이에 시 교통건설국은 신속한 현장출동과 유관부서간 협업, 종합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근본 해결책 공동추진을 위한 ‘교통문제해결TF’를 사업별로 수시 구성·운영하는 등 올 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11월 현재 총 10건의 교통문제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진단 및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4건을

추진완료하고, 복합민원 6건은 추진 및 준비 중에 있으며,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교통현안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서구 월평동 카이스트교의 경우 교통정체가 극심하다는 언론보도 직후 국·과장과 교통관리센터담당 등 9명으로 TF를 구성, 현장진단 및 대책회의,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차로변경과 좌회전신호 장치를 통해 단 9일 만에 교통흐름 개선을 완료했다.

또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습정체구간의 경우 버스정책과와 운송주차과 협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정확한 현장진단과 대책 마련, 신속한 처리로 ‘교통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교통문제는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단

기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극 대화 한다는 원칙아래 신속한 문제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 운동 등 시민의식 개선도 절실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충남대 서문네거리 등 교통정체지역 민원은 차선조정을 완료하고 차로연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학하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및 교통혼잡 주민 민원의 경우 시 교통정책과

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12년부터 농업, 언론,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별·지역별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 및 지역

부 역량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at, 대전세종충남본부 2017년 하반기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 세종충남지역본부(at)는 22일 지역 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및 지역본부 역량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at은 수급관리, 유통개선, 수출 진흥, 농식품산업 육성 등 주요 정

문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송병배기자



해양 방파제용 테트라포드 산림재해 예방·복구 시설로 재탄생

산림재해 예방·복구 시설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 등록

충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이 바다에서 파도나 해일을 막는 방파제에 사용되는 테트라포드로

산지경과 등 산림재해 예방과

복구 사업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어 눈

길을 끌고 있다.

충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0일 테

트리포드를 이용한 사방시설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를 등록했다.

이번 특허는 지난 8월 8일 등록

된 직무발명에 이어 두 번째 등록

으로,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 인

정을 받은 것이라 의미가 크다.

테트라포드를 이용한 사방시설은 201

●정정●

수험생들 격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 23일
오전 7시 2018
년도 대 학수
학능력시험장
(대전문화고등학교)을 방
문하여 수험생들을 격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김경훈 대전시
의회 의장 =
23일 오전 10
시 시청 세미
나실에서 열
리는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시민대토론회
에 참석, 오전 11시 시청 남문
광장에서 열리는 사랑의 온도
탑 제막식에 참석.

장애인활동 이용자 교육



한현택 동구청
장 = 23일 오
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장
애인활동 이
용자 교육에 참석.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무식



박용갑 중구청
장 = 23일 10
시 용두동 주
민 센터에서
'용두동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종무식' 참석.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



장종태 서구청
장 = 23일 오
후 1시 30분
국회현장 기념
관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
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
참석.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허태정 유성구
청장 = 23일
오후 2시 열매
마을 6단지에
서 열리는 열
매마을 6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에 참석.

복지전달체계 소통 워크숍



박수범 대덕구
청장 = 23일
오후 4시 구청
대강당에 서
열리는 민·
관·학 협력
복지전달체계 소통 워크숍에 참
석.

AI 유입차단 비상... 방역활동 강화

차단 방역 상황과 농가별 소독 활동 · 향후 대책 등 종합적 점검

대전광역시가 전북 고창 육용 오리 농가와 전남 순천 애생조류 분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AI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자 나섰다.

시는 22일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AI 긴급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차단 방역 상황과 농가별 소독 활동 및 향후 대책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방역협의회 참가기관들은 AI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학관련 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하였으며 방역취약농가 등 가금 농가에 대한 집중 지원과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구와 대전축협은 축산농가 와 긴밀히 협조해 자율차단방역을 지원하고 축산관제시설(도축장, 사료회사 등) 관리, 방역취약

지역 특별예찰 등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애생조류에 대한 차단시설 강화 와 주변 소독을 통해 질병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 대전 오월드는 버드랜드 등 동물원 내 가금시설에 대한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방문

객에 대한 대인소독 및 물세정에 대해 차단시설 설치와 관리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AI 차단방역에 힘쓰기로 했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별 담당공무원 지정을 통한 점검,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및 차량통제 등 차단방역, 농가 예찰 및 소독 등 그동안의 방역 대책 활동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관계기관 단체에 주문했다.

또한, 18년도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특성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이후 소유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가 이루어진다.

유성구 관계자는 "조사된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현안사업 내실 추진 · 미래비전 실현 가속화"

대덕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을 연말 부채 20억 원 상황을 끝으로 민선6기 출범 당시 부채 67 억 원을 모두 깨어부채제로 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역점 사업으로는 ▲ 교육혁신도시 실현을 위한 자기 주도 학습센터 운영 ▲ 가스 안전 도시 대역 실현 ▲ 효자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 민선6기 일자리 공시목표 2만 명 달성 ▲ 신탄진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협의 ▲ 대구꽃 무궁화항기 기득한 로하스길 조성 ▲ 광한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 동별 학습마을 만들기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다가오는 2018년은 대덕의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들이 가시화 되는 시기로, 도시개발에 따른 주거단지 조성이 마무리 되는 2022년을 대비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민선6기 현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상급기관 재정지원 사업 확보 등 구정의 새로운 발전 동력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한편, 시는 농가 자체 소독활동 강화를 위해 생선회 70톤, 일회용 방역복 4,160벌, 소독약품 5,630L 등 방역재료를 구매하여 축산농가 및 관련 기관에 배부하였으며, 향후 추가 구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AI의 유입 방지를 위해 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및 차량통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 기관에 신속히 신고(국번없이 1588-4060)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2018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유성구, 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특성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이후 소유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가 이루어진다.

유성구 관계자는 "조사된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대전현충원 앞 테마거리 명칭 공모

호국·애국·보훈 의미... '나라사랑길(가칭)' 사업 추진 중

(042-270-411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작품 중 심사를 통해 최우수 1점 50만 원, 우수 2점 각 30만 원, 장려 3점 각 1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선정된 명칭은 서체를 디자인해 설치될 계획이다.

대전시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은 "가칭 나라사랑길 조성사업과 명칭 공모전은 호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오래 동안 간직코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다"며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하나로내과의원 충남대교병원 발전기금 5천만원 기부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하나로내과의원이 연말을 맞아 충남대교병원 발전기금(내과계열 발전기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1동 이웃사랑 김장나눔 한마당

민관 합동 소외계층 나눔의 자리 마련

충리종합사회복지관은 22일 겨울을 맞이해 지역 생활단체와 함께 저소득 노인·다문화·장애인·조손·한부모 가정 등 총 500세대를 대상으로 '법1동 이웃사랑 김장나눔 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법1동새마을부녀회·법1동복지만두례·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충리종합사회복지관·충리복지만두례·문명자회장

은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는 겨울철이 더욱 혹독하게 느껴진다. 저희의 손길이 조금이나마 그 분들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1동만두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충리복지관 신이원 관장은 "매년 겨울 이웃사랑실천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삶을 나누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승병관 기자

서구 희망 무료진료 전개

어르신·장애인들 대상 따뜻한 의료의 손길 전해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2일 행정안전부지관에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희망 무료진료'를 했다.

이번 진료에는, 을지대학교 병원, 대전대학교 문산한방병원, 원

또한, 서구는 단순 진료에 머물지 않고 위험군 관리를 위한 사후 연계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무료 진료를 전개하는 등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료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관 기자

서구 희망 무료진료 전개
어르신·장애인들 대상 따뜻한 의료의 손길 전해

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맑은 눈 안과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시 보조기구센터 등 10개 기관 2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기본적인 건강관리 상담부터 약 처방까지 따뜻한 의료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법1동새마을부녀회·법1동복지만두례·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충리종합사회복지관·충리복지만두례·문명자회장

박봉관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제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톡톡 뛰는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

제1회 당진 청년 창업경진대회 출품 아이템 눈길 … 15개 아이템 본선 무대 올라

지난 18일 당진시가 개최한 '제1회 Thank U! 당진 전국 청년 창업경진대회'에 출품된 청년들의 톡톡 뛰는 아이디어가 화제를 모고 있다.

이번 청년 창업경진대회에는 청년들이 청안해년 197개 사업 아이디어가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끌고 모두 15개 아이템이 18일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에 오른 창업 아이템 중 300명의 청중 평가단과 5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는 전영석 씨가 제안한 '바지를 벗기지 않는 이웃도어 기저귀'였다.

대상을 수상한 '바지를 벗기지 않는 이웃도어 기저귀'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제안자가 외출 시 기저귀를 갈아줄 때 바지를 벗기고 입히기 힘들고 갈아입힐 장소가 많아 고생했던 '실전 육아' 경험이 녹아있는 아이템이다.



이 기저귀는 바지를 벗기지 않고도

교체가 가능한 벤드형 기저귀와 기저귀를 입히기 쉬운 팬티형 기저귀의 장점만을 모아 벨트처럼 두르는 리무빙 허리 밴드를 활용해 아이가 움직여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기저귀 교체가 가능도록 개발해 자녀를 둔 청중 평가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작 '기숙사생들을 위한 고단기 미니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는 고영민 씨가 제안한 아이디어다.

이밖에도 본선대회에서 입상에 오른 나머지 5개 작품을 비롯해 이시원 씨의 '차량 진단이 가능한 모바일 자동차 키'와 박현규 씨의 '연락처 기반 대리결제 서비스' 등 입상하지 못한 아이템들도 톡톡 뛰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살린 실용성으로 모두 호평을 받았다.

당진=최근수기자



'국립양평치유의숲' 개장식 개최 운영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우측 다섯 번째)이 지난 21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황거길 262-10번지 일원에서 열린 '국립양평치유의숲 개장식'에서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우측 네 번째), 김선교 양평군수(좌측 다섯 번째) 등이 참석한 내외빈들과 피어팅을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산림청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어 623㏊ 주요시설 8680㎡의 부지에 건강증진센터, 운동장, 치유실, 치유숲길(13km), 치유음악, 숲속오두막, 통나무놀이숲, 풍욕장 등으로 조성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인사노무관리 지원 협약

행사를 한다는 것에 매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는 평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기업 및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설가 등 민간 산림복지 전문가의 고용인원을 1700명(200여 명 증대)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산림복지전문부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193곳으로 이곳에 종사하는 산림복지 전문가는 1493명이다.

아울러 산림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복지 전문가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산림복지 전문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윤영균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청년들에게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복지진흥원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18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송병배기자

은내년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이은 인건비의 과도한 부담과 임금체계 개편, 아랑 세차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근로환경과 세차장 홍보방법에 대한 환경이 이어졌다.

장차원 사회적경제과장은 "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관련 사업의 확대 및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시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무료법률지원조례에 의한 노동상담소의 취약계층 지원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고령이나 청소년,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산=리량주기자

노란우산공제가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우대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시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우대 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신청일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탕정면 주민자치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

아산시 탕정면(면장 유종희)은 21일 태안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2017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계자 워크숍'에서 주민자치 시범실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성과와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주민자치 담당자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 중 전국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아산시 탕정면 주민자치회(회장 한종태)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자치 역량'이라는 주제로 탕정면 주민자치회가 거둔 모범적 성과들을 소개했다.

유종희 면장은 "탕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탕정면 주민자치회의 성공모델이 우수사례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종태 회장은 "2013년 실시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중 탕정면이 탄탄한 기반을 이루어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 회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탕정면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시기업인협의회, 취약계층 후원품 전달 행사 가져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회장 홍원우)는 지난 21일, 아산시 행복기움지원단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제 15회 취약계층 후원품 전달행사를 진행했다.

주삼아인티네셔널(대표 차홍용), 영농회사법인 주들만나식품(대표 권인순), 은주곰탕(대표 김병관) 3개 업체가 참여해 과자, 김치, 곱탕 등 1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아산시 행복기움지원단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품은 아산시 업체들, 방정면, 선장면, 운양2동, 운양5동의 행복기움주진단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되어 식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

홍원우 아산시기업인협의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마음을 모아 취약계층 후원

행사를 한다는 것에 매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는 평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기업 및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산림복지 일자리 확대 내년 99명 신규채용

숲해설기동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종사자 200명 증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산림복지시설의 확대에 따른 산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내년도에 산림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정규직 99명을 신규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 6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산림복지분야의 공공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 99명 신규채용 … 정원 150명 → 249명

진흥원은 현재 사무처(대전)를 비롯해 국립산림복지유원(경북 영주·예천)과 국립숲체원(충청, 경북, 경상), 국립하늘숲 주모원(경기 양평), 파랑새유아숲체험원(세종)에서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 산림복지시설(충청·양평·대관령·울산·울진·세종)에서 150명이 신규 채용된다.

▲ 숲해설가 등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종사자 1500→1700명(200명 증대)

진흥원은 내년까지 전문업체도에 대한 홍보와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숲해설가 등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종사자 200명 증대를 목표로 한다.

내년도 신규채용 대상자는 내년 초부터 총 3회에 걸쳐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60명을 내달 말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식당·청소·시설관리 등의 분야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용역근로자)

에 대해서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말 이후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도 진흥원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내년 1월 중순경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www.fowior.kr)의 '정보마당/인재채용/채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균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청년들에게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복지진흥원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18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송병배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산림청, 임도시설 우수사례 공유 등

‘2017년 임도시설 발전 워크숍’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2일부터 23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에서 ‘2017년 임도시설사업 발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임도시설 우수 사례를 공유해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기술교류를 통해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총 3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은 22일 ‘임도시설 우수사례’를 시상한다.

앞서 산림청은 전국에서 응모

한 30건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19건, 현장심사로 14건을 선별했다. 이날 지자체·기관별로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분야 교수, 기술사, 담당 공무원 등 6명의 전문가가 재해안정성, 임도 활용도 등을 평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점, 산림청장상 6점, 특별상 2점을 선정한다.

임도시설 우수사례 발표 중 지역별 차단체 민유임도 분야에는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북도 환경연구원이 참여한다.

박봉관기자

건양대 간호대학 학술동아리 ‘그린나래’

우수 치매극복 선도 단체 3년 연속 선정



건양대학교(총장 정연주)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술동아리 그린나래가 대전광역시 치매센터가 선정하는 ‘대학생 우수 치매극복 선도단체’에 3년 연속 수상하는 평가를 이뤘다.

건양대 간호대학 김두리 교수

지도하에 활동하는 치매 간호연구 학술모임인 그린나래는 2015년부터 대전광역시 치매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파트너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치매극복의 날 행사참여를 통해 대전 시민들에게 치매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

이정복기자

이인섭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 애로해소 위해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소개와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22일 ‘이인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섭 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를 빨গ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중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경영애로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방안 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자동차 정비 교육 지원, 대우 공동구매방 부족에 따른 지원, 죄저임금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요청 등 11건을 건의했다.

전원식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은 “고용창출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전국 국립대병원 상당수, 의료인력 PA 간호사 대체

전공의 수급난에 병원마다 PA로 진료공백 채우기 ‘급급’

전국 국립대학교 병원 상당수가 부족한 의료 인력을 PA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Physician Assistant)는 부족한 전공의(레지던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는 진료지원 인력을 말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 민주당, 마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대학병원에 3230명의 PA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PA가 채용된 곳은 서

울대병원으로 105명이 근무 중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대병원이 587명, 경상대병원 460명, 전북대 병원 257명, 전남대병원 2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으로는 ‘외과’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과가 127명, 흉부외과는 68명, 신부인과 56명, 정형외과 48명, 마취통증의학과 42명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선호하는 진료과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전공의 모집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진료과의 부족한 일손을 PA로 채

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PA는 주로 간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PA가 단순 행정 같은 업무를 지원하는 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PA 인력이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행정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PA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또한 쉽지 않다.

PA의 업무 또한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술실 보조 업무, 시술은 물론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까지 위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거나 환자 상태를 실제와 다르게 기록하는 실수를 해도 사실상 의료 기록에는 의사가 진료를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결국 환자의 건강권만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PA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라기보다 사실상 무법에 더 가깝다”며, “근본적인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료공백을 PA로 맴寝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선기자

문화재청, 가야문화권

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주최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립 가야·나주·경주문화재 연구소와 함께 주관하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지난 7월 1일 발표된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와 정비’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그동안의 학술 조사·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제1부 가야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제2부 가야문화권의 고고학적 조사 현황과 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학술회의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 055-211-9017)로 문의하면 된다.

박봉관기자



아산시,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성료

마을리더 및 활동가 56명 대상으로 실시



아산시(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17일, 송악면 외암강당 권역 농촌뜨락 교육관에서 아산시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의 마지막 교육과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시 농촌마을 종금년 소액사업 대상마을 및 농촌현장포럼, 희망마을 선발사업을 진행 중인 마을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 중인 마을리더 및 활동가 56명을 대상으로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진행된 제4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in 보령에 참여하는 과정을 교육프로그램에 담아 타 시·군 마을리더 및 활동가들과 함께 교류하는 만남

아산=리량주기자

대전대학교 MOOC 교육센터

‘2017 DJU-MOOC 강의 콘서트’



대전 대학교(총장 이종서) MOOC 교육센터(센터장 박시용 교수)가 오는 23일까지 대학 창학관 강당에서 ‘2017 DJU-MOOC 강의 콘서트’를 개최한다.

ACE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MOOC 콘서트’는 지식 공유를 통한 사회공헌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인문학&한의학’ 콘서트라는 주제로 첫 문을

대전교육청, 2017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 받아

에듀힐링 Wee·Tee·Pee 프로젝트 최우수 교원치유지원센터 선정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부 주관 ‘2017년(16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육청은 학생(55천명), 교직원(8천명), 학부모(7천5백명)가 에듀힐링 프로젝트에 참여해 학교 폭력 피해 응답율이 24.1% 감소되는 성과를 냈으며, “교육기족의 행복을 위한 에듀힐링 Wee·Tee·Pee 프로젝트”가 교육부 주관 2년

연속 최우수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선정되는 등 교원 치유 지원 관련 교육정책 선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특색사업 부분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교육부에서도 사업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하여 교원 치유 지원 관련 국가정책에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화환경 조성,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약 70억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아, 전액을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및 우례탄 트랙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한 바 있다. 올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도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체육 관찰립 등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선문대·상명대·한서대·한국기술교육대·한서대

합학사(Bachelor of Creative & Convergence)

내년 1학기부터 강의가 시작된다. 3학년 1학기에 선문대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3학점)와 상명대 디자인 프레젠테이션(3학점) 과목이 개설된다. 4학기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는 수강이 가능하며, 금요일마다 개설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 정규학기 수업의 실습도 실시된다. 방학 기간 글로벌현장실습과 청진캠프가 계획된다.

김종해 선문대 교무처장은 “대학 간 벽을 허물고 디양한 분야의 물적, 인적 교류를 위해 교류협력 체결을 합의하게 됐다”며 “최근 많은 대학들이 교육, 연구 등 교류협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공과목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지방재정 안정 위해… 체납자랑 번호판영치 등 체납액 징수총력 다짐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2일 상황실에서 실·과 주무팀장과 읍·면 부면장, 재무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는 동시에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강제방지·세외수입 체납액 및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부동산 및 금여입류, 주 1회 이상 체납자랑 번호판 영치 활동 및 고액 관외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팀 운영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강준배 부군수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다

양한 징수대책을 기반으로 연말까지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57.8%로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징수율을 제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29일 체납자랑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새벽부터 대대적인 번호판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예산소방서, 119소년단 소방안전교실 운영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난 22일 예산창조국악어린이집 119소년단을 대상으로 찾이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 및 소년단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산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지난 21일, 소방차량 진입관 지역의 불법주정 차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 소방출동으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톨라대 대전성모병원 개원 48주년 기념식 개최 기톨라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22일 오후 5시 병원 8층 대강당 상지홀에서 개원 4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0·20·25·30·35년 정기근속자들에 표창과 포상을 이뤄졌다.



‘중소 협력업체들과 상상발전하겠습니다’ 오비맥주는 2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맥주문화체험관에서 중소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대회를 열고 상상발전 의지를 다졌다.



아름누리, 역사문화탐방대 성료 아름누리아카데미 사회적 협동조합(이사장 이황호)이 운영중인 2017년 농촌재능나눔 사업-역사문화체험탐방대가 지난 9일, 영인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주의 당부

청양소방서, 집안에 가정용 소화기 비치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갑작스런 추위로 인해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난방기구 화재 예방법을 살펴보면 전열기는 사용 전 면지를 털어내고 플러그나 전선이 손상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석유난로는 작동 중에 주유나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또 보일러는 연통이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무 등 가연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화재 시 대응요령으로는 소규모 기름화재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담요를 덮어 진압하고, 가스 및 전류 공급을 차단 또는 제거하며 대피 시에는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난방기구로 발생한 화재는 난방연료로 인해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으니 집안에 가정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에 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충남 주요 하천 외래 식물 건강 ‘빨간불’

외래 동·식물 광범위 확인…지속적 모니터링과 제거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충남도 내 주요 하천의 건강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래 동·식물이 광범위하게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거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하천 회복과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주요 하천 수생태계 현황 및 건강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가 도내 수질측정망 설치지점 중 천안천과 공주 유구천 등 15개 시·군 20개 주요 하천 지점을 선정해 추진된다.

연구용역 내용은 ▲수온, 유속, 수소 이온농도(pH) 등 수생태계 일반 현황 ▲부착물말류, 어류 등 수생생물 현황 ▲서식 및 수변환경 조사 ▲수변식생 현황조사 등으로, 2차례의 현장 조사와 문현 자료 비교를 병행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부착물

말지수는 20개 지점 모두 D등급(나쁨)~E등급(매우나쁨) 수준으로 확인됐다.

부착물말류는 멕시시슬 1차 생 산자이자 환경 변화와 서식처 조건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지표생물로, 도내 주요 하천의 부착물말류 관련 건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또 조개, 새우 등 하천 바위나 모래에 서식하는 저서동물 관련 지수는 청양 지천이 A등급(매 우좋음)으로 나타나고 유구천, 보령 응천천, 계룡 왕대천, 금산천 등은 B등급(좋음)을 받았다.

반면 천안천과 보령 대천천, 서 천 길산천, 홍성 광전천 등은 E등급에 불과했다.

어류평 가지수에서는 대부분 C 등급(보통)이나 D등급으로 조사됐 으나, 유구천과 왕대천은 B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건강성을 보였고, 태안천은 하천 공사로 인해 E등급을 보였다.

어류 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생

태계 교란종인 배스와 블루길, 외 래종인 뼈붕어 등이 각 하천에서 나타났다.

수변 식생 및 식물상 조사에서 는 총 237종의 식물이 조사됐다.

가장 많은 곳은 서산 신장천으 로 111종, 가장 적은 곳은 대천천으로 66종이다.

이 중 외래종은 미국가막사리, 개망초, 서양민들레, 단풍이꽃 등 62종이 확인됐으며, 가시박, 단풍잎데지풀, 폐지풀, 가시상추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은 10개 하천에서 출현했다.

또 서식수변환경지수를 산정한 결과, 20개 지점 평균값은 56.6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하천의 입지적 특성과 수생 및 수변생물들의 서식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인 수변식생지수는 598점으로 B등급으로 계산되고, 하천별로는 A등급 5개, B등급 11개, C등급 4개로 조사됐다.

김기웅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주요 하천에 대한 건강성을 확인하고, 정책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며 “수변식생지수로 볼 때 앞으로 수생태 건강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만큼, 모니터링 및 제거 사업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토록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물환경 종합관리 대책 효과 분석 및 정책 수립 ▲하천 복원 기본방향 제시 ▲수질측정망 자료 연계 및 물관리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1일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수질 및 수생태계 담당 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내포=김정한기자

서천소방서, 신임 소방

공무원 실무적용 교육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20일, 21일 2일간 본서 소회의실에서 이달 6일 신규 임용된 신임 소방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실무적용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훈련은 신임 직원들의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돋우고, 궁금 윤리관 확립 및 효율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훈련의 주요 과목은 소방행정·예산장비·의 용소방·화재구조·예방안전·구급·현장대응조사 분야로 각 팀장이 교관이 되어 신임 소방공무원의 업무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김진홍 소방행정과장은 “이번 교육훈련을 통해 소방조직에 첫발을 내딛은 신임 소방공무원들의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침된 소방관으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천=김태선기자

아산시보건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실내체육시설 흡연 전면 금지

아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국가 금연 환경 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

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 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 중심 내에 설치한 업소(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로 금연구역이 확대·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관내 실내체육시설 418개 업소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와 홍보를 위한 금연표지를 일괄 배부했으며 오는 2017

년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김기봉 아산시보건소장은 “12월 3일부터 실시되는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당진소방서, 서아중학교 학생 25명 대상

미래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22일 서아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미래 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했다.

‘미래 소방관 체험교실’은 중 학생들의 수업 과정 중 하나로,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이날 체험은 서아중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했으며, 교육내용은 ▲소방공무원 되는 방법 소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방화복 착용 ▲방수체험 등으로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진로체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소년원·충남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사와 학생 대상 응급처치 교육

대전소년원(원장 오영희)은 지난 21일 충남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필균 생활지도교사는 “응급처치에 대해 궁금했던 점과 잘 못 알고 있던 것을 바로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교육소감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교육에 참여하여 실습을 마친 후 평소 응급처치 관련 궁금했던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교육을 받은 권한열(기생)군은 “꼴든타임, 4분의 기적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주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지나치지 않고 꼭 도와주겠습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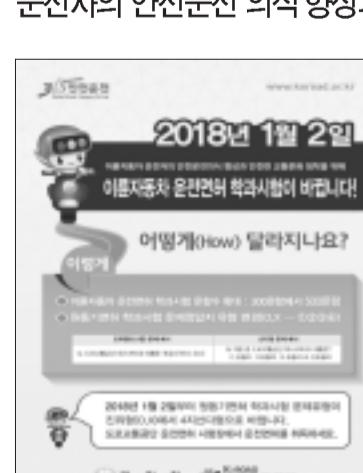
신필균 생활지도교사는 “응급처치에 대해 궁금했던 점과 잘 못 알고 있던 것을 바로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교육소감을 나타냈다.

대전소년원 오영희 원장은 “우리 직원들과 학생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충남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상범기자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개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향상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위해



내년부터 이륜자동차 일명 오토바이) 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

22일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자동

차기능은 항상, 비용은 절감) 국토청은 지난해에도 총공사비의 4.6%에 달하는 335억원을 절감하는 등 2년간 총 54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도 건설사업의 저비용·고기능화 실현 및 설계VE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용역과 분리, 별도의 설계VE 전문회사 선정 및 전담팀을 구성하여 설계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

한 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총 1만3076건으로 5년 전인 2011년(1만170건)에 비해 28.6% 증가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로 42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만5773명이 부상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부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대비 1.7배나 되고 기기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차량단독 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대비 약 2배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분석 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분석

송병배기자

“기업10곳 중 7곳, 연말 성과급 없다”

<사람인>조사결과… 평균 성과급 239만원 · 대기업, 중소기업의 4.8배

직장인들에게 올 겨울은 더 춥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연말 성과급 지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341개사를 대상으로 ‘연말 성과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68%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63.4%)보다 4.6%p 증가한 수치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68.8%), 중견기업(63%), 대기업(60%)의 순서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의 비중이 높았다.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 재정 상

태가 좋지 않아서’(46.6%, 복수응답)를 첫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정기 지급 규정이 없어서’(31.9%), ‘올해 목표 실적 달성을 실패해서’(22.4%), ‘다른 상여금을 지급했거나 계획 중이라서’(9.1%),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4.3%) 등이 있었다.

이들 기업은 올 연말 성과급 대신 ‘회식, 송년회 등 행사’(57.8%, 복수응답), ‘내년 연봉 인상’(23.3%), ‘선물세트, 상품권 등 선물’(21.1%), ‘특별 휴가’(12.1%)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109개사)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239만원이었다.

구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100~120

만원 미만’(13.8%), ‘80~100만원 미만’(13.8%), ‘500만 원 이상’(8.3%),

‘180~200만원 미만’(7.3%), ‘140~160만원 미만’(7.3%), ‘60~80만원 미만’(7.3%), ‘40만원 미만’(7.3%), ‘300~320만원 미만’(5.5%), ‘220~240만원 미만’(5.5%) 등의 순이었으며, 월급기본급 대비 평균 11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지급한 성과급 액수와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고, ‘증가했다’(32.1%), ‘감소했다’(15.6%), ‘지난해 미지급했다’(14.7%)의 순서로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900만원), 중견기업(453만원), 중소기업(189만원)의

순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4.8배 수준이었다.

지급 방식은 ‘부서 또는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44%), ‘개별 실적 관계 없이 회사 실적에 따라 동일 지급’(36.7%),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19.3%)의 순이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62.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목표 실적을 달성을 위해서’(45.9%),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9.2%),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6.4%), ‘회사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5.5%) 등을 들었다.

이정복기자



태안교육지원청, 청렴 골든벨 실시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은 지난 21일 청사 어울림홀에서 관내 초, 중, 고 행정강령책임관(교감), 행정실장,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 연수 및 청렴 골든벨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 정승호 전문강사를 초청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 후, 청렴을 저해하는 업무 및 의식의 관행에 대해 유쾌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청렴골든벨이 진행됐다.

아산시보건소 쌍용보건진료소

‘아름다운 노년 위한 건강강좌’ 개최



아산시보건소 쌍용보건진료소(유기연 소장)가 지난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건강강좌를 웨딩아일 험파예 예산지부장인 최현숙 강사를 초빙해 쌍용초등학교에서 웨딩아일 특강을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존엄한 마무리, 사전장례의향서 작성, 베리스트 작성, 유언과 상속, 용서와 화해 등 주제로 5회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기연 쌍용보건진료소장은 “내년 2

월 환자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웨딩아일이 시행되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소개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을 강의해 어르신들이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준비했다.”며, “올 한 해동안 『뚜렷이 건강학교』를 통해 건강체조, 요술길예방교실, 혈압당뇨측정, 난타교실, 인문학 수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산=리량기자

‘김윤식 전각전(篆刻展)’ <길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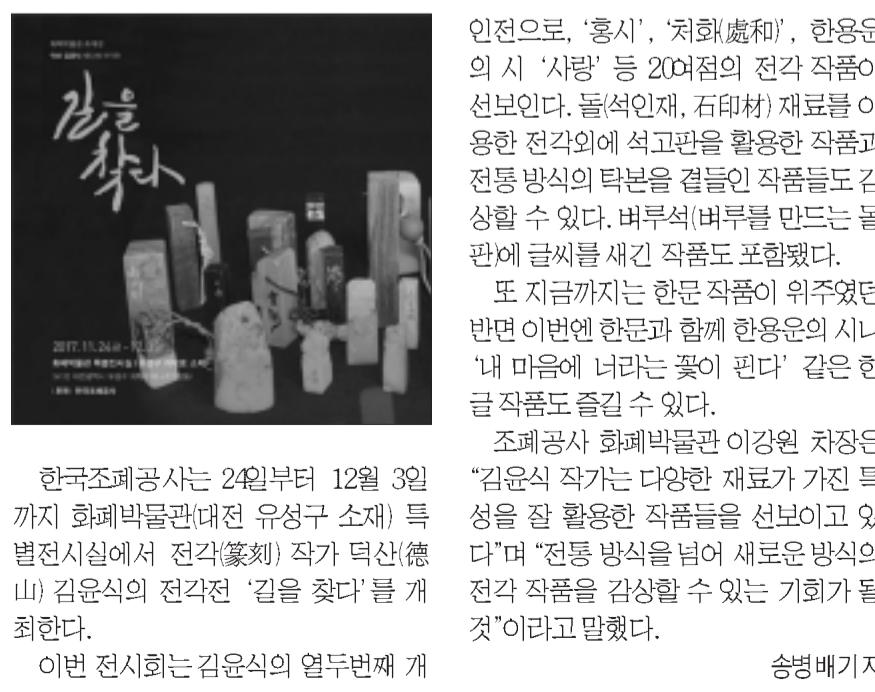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돌외에 석고 · 벼루석등 활용한 새로운 작품 소개

인전으로, ‘홍시’, ‘처화(處和)’, 한용운의 시 ‘사랑’ 등 20여점의 전각 작품이 선보인다. 돌석(인재, 石印材) 재료를 이용한 전각외에 석고판을 활용한 작품과 전통 방식의 탁본을 결합한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벼루석(벼루를 만드는 돌판에 글씨를 새긴 작품)도 포함됐다.

또 지금까지는 한문 작품이 위주였던 반면 이번엔 한문과 함께 한영문의 시나 ‘내 마음에 너라는 꽃이 핀다’ 같은 한글 작품도 즐길 수 있다.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이강원 차장은 “김윤식 작가는 다양한 재료가 가진 특성을 잘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며 “전통 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의 전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김윤식의 열두번째 개



한국조폐공사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화폐박물관(대전 유성구 소재) 특별전시실에서 전각(篆刻) 작가 덕산(德山) 김윤식의 전각전 ‘길을 찾다’를 개최한다.

송병배기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당진교육지원청, 최종 결과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



당진 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당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당진시청 관계자, 충청남도의원, 당진시의원, 학교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당진동 지역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밀학급 및 과대학급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진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왔으며, 이날 보고회

는 학교 신설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학교용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효율적인 공공인프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최병관 교수(공주대 공과대학)는 당진동 지역의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초·중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화시설 조성 방안을 소개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대전교육청, 25일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후 오전 8시30분까지 입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11월 25일 대전문정중과 대전탄방중의 2개 시험장에서 ‘2018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 및 사립위탁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총323명 모집(공립 303명, 사립위탁 20명)에 2,591명(공립 2,417명, 사립위탁 174명)이 지원했으며, 시험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오전 8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또한, 필기시험으로 교육학 및 전공과목을 평가하며,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

공은 기인형, 서술형, 논술형이 혼합된 유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2월 29일 오전 10시 대전 교육 청 홈페이지(www.djego.kt)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실기시험을 교수·학습지도인작성 및 수업설연, 심층면접 등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사립교사 위탁선발시험은 1차 시험까지는 공립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제2차 시험부터는 법인 자체에서 실시하게 된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수험장학교의 시설과 수험생 안전 확보 등

안정적 수능시험 확보 ‘총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수험장학교의 시설과 수험생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수)밝혔다.

먼저, 21일자로 모든 수험장학교의 급식실 위생과 가스안전을 점검하여 수능 당일 수능 종사자들의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수능 안내방송과 듣기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방송장비와 음향상태를 점검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전력·세종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23일(목) 수능시험 당일의 모든 시험장에 전기 엔지니어(1명), 소방공무원(2명)을 배치되어 혹시 모

세종=이정복기자

홍성교육지원청, 인성코칭 아카데미 수료



11월 21일까지 5회(10시간)동안 운영됐다.

김도연(한국비폭력대학센터) 강사와 함께 비폭력대학원과 관찰과 평가를 섞어 표현하면 상대가 오히려 비판으로 들어 저항감을 갖는다는 평가와 관찰을 분석하는 것부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NVC 활용 인성코칭 학부모 아카데미는 비폭력대학원과 관찰을 통한 행복한 학부모 성장 프로그램으로 10월 24일부터

홍성=김정한기자

마을교육공동체의 시야를 넓히다

공주교육지원청, 201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진지 연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지난 21일 관내 54개 단위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지역특색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선진지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이 연대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홍성·충동중학교 및 인근마을을 탐방하며 마을과 학교사이의 생생한 상생과정을 배우고 마을인적, 물적 자원을 둘러보았다. 마련됐다.

박신자 교사(홍동중학교)는 홍동마을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꿈! 끼! 펄칠 체육대회’ 실시
금산교육지원청(이희천 교육장)은 22일 금산학생체육관에서 관내 중등특수교육대상학생 59명과 중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꿈! 끼! 펄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동정

김치공장 준공식



복기왕 아산시장=23일 오전 11시 도고면 향신리에서 열리는 6차 산업 김치공장 준공식에 참석.

시민 대토론회



김홍장 당진시장=23일 오후 2시 30분 당진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열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

제2차 정례회



이종윤 당진시의장=23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

관계자들 격려



한상기 태안군수=23일 오전 10시 태안읍 평천리에서 열리는 공공비축 미국매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



이석화 청양군수=23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 참석한 후, 오후 1시 30분 청양농협에서 열리는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에 참석.

이사회



윤주역 청양교육장=23일 오전 7시 20분 청양고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학생 격려 후 오전 11시 청양군청에서 열리는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 참석.

청양군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결혼이주 여성 등 다문화가족 대상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2일 결혼이주 여성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군은 4개 국어로 제작된 도로명주소 안내리플릿과 안내지도를 이용해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알림과 동시에 사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군은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시행된 이후 지역 축제장과 상점가 등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의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청양=정상범기자

'거리축제'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자리매김

태안군, 22일 '2017 도전한국인 차치단체 축제 시장'에서 지역축제 부문 대상 수상



태안군민들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신명난 축제 한마당 태안 거리축제'가 전국 지자체 대표 축제로 선정됐다.

태안군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사)도전한국인운동협회와 도전한국인본부 주관으로 열린 '2017 도전한국인 차치단체 축제 시장'에서 태안 거리축제가 지역축제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도전한국인 차치단체 축제 시장'은 각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축제들 간 연대감을 높이고 지자체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축제를 발굴해 지자체의 발전 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7 차치단체 축제 위원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국민일보 등이 후원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태안 거리축제는 지난 2002년부터 개최되며 2007년 유류피해사고로 종단된 이후 군민들의 협력에 힘입어 2015년 재개된 태안의 대표 거리축제로, 태안읍 주민 삶의 터전인 태안읍 중앙로와 2개 전통시장 일원에서 매년 개최된다.

태안 거리축제의 이번 수상은 최근 전국적으로 침체임로를 걷고 있

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제시한 것은 물론, 전통시장과 중앙로 일대를 관광휴양도시 태안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군은 앞으로도 태안 거리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들이 태안의 독특한 문화와 따뜻한 인정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발

전방인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상기 군수는 "태안 거리축제는 유류피해를 극복한 태안군민들의 화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명난 축제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태안을 찾아 축제를 즐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태안 거리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들이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엄마들의 손맛이 모여 주민화합 이끌다

당진시 순성면 주민자치위·향토요리 경연대회 열어

당진시 순성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남영) 주관으로 지난 21일 이색적인 향토요리 경연대회가 열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순성 왕래실 조합에서 순성면 관내 17개 마을과 다문화 가정 등 18개 팀이 참가한 향토 요리경연대회가 열려 참여자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곡류 등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이날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선보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서로 소통과 화합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리를 함께 나눠 먹는 등 대회라기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었다.

또한 순성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특화사업으로 마련된 이날 대회는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논의하는 주민자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화합을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이남영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선보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서로 소통과 화

합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청정 해수 절임배추 '인기'

바닷물로 절여 미네랄 풍부, 김치 맛 고소하고 아삭한 식감 오래 유지

김장철을 맞아 태안반도의 청정 바닷물로 절인 절임배추가 선 풍적인 인기를 끌며 태안군의 새로운 소득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태안군 바닷물 절임배추는 태안군의 청정 바닷물을 이용, 전통 방식대로 배추 숨을 죽여 1~2일 간 절이는 과정을 통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아삭한 식감이 오래 유지된다.

또한, 일반 소금으로 배추를 절일 경우 소금에 따라 김치가 짜거나 쓴 맛이 나는 반면, 바닷물 절임배추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간이 배추에 골고루스며 김치 맛이 고소하고 입맛에 따라 양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김장과정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배추절임 과정을 대신해주고 아파트 내에서도 간편하게 김장이 가능하며 김장 후 골쳤거리인 김장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 전국의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해당 절임배추 업체 관계자는 "48시간 동안 바닷물에 절이는 과정이 있어 3~4일 전에 예약해야 출하가 가능하며 최근 김장철을 맞아 쉴 새 없이 작업하고 있다"며 "가격은 20kg당 3만 4천 원 선이며, 태안산 절임배추는 맛과 품질이 우수해 전국적으로 인기 가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온양6동,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실시
아산시 온양6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박철우, 부녀회장 김영희)는 21일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아산 E마트 봉사단 등 50여명이 참여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온양6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를 주축으로 하여 온양농협 및 아산 E마트에서 각종 양념 재료를 지원해 실시됐다.

청양군 정산면 사과농가 냉해 피해방지 일손 돋기



청양군 정산면(면장 김성근)은 지난 18일 전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농작물 냉해를 막고자 관내 사과농가에 인력을 긴급 투입해 수확작업에 나섰다.

면은 갑작스런 한파에 미처 수확을 마치지 못한 서정2리 소재 사과농장에서 수확 등 일손 돋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농장주 구모씨는 "갑자기 추위 날씨와 강한 바람에 미처 수확

하지 못한 사과가 얼어버릴까 걱정돼 정산면에 인력을 요청하게 됐다"면서 "휴일을 반납하고 도와준 정산면 직원들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성근 정산면장은 "갑작스런 한파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예상돼 주말임에도 불가피하게 긴급 소집해 일손돕기에 나서게 됐다"면서 "별 다른 피해 없이 수확을 마치게 돼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일손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세계적 고령사회 공동체 구축 '앞장'



4대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앞장

계룡시, 2일간 전 직원 대상 예방통합교육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목)는 지난 20일과 22일 2일간 시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예방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차별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최영미(대전폭력예방통합교육연구소장)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회의 근원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폭력예방은 물론 4대 폭력에 대한 개별적 특성과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돋보이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폐해를 인지시킴으로써 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 폭력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4대 폭력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져 가장 폭력 없는 가정, 성희롱 없는 직장, 성매매·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천군 자원봉사 대축제 열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1일 서천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 주민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서천군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장 수여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인증서와 골드배지 수여를 했으며 2부에서는 가수 전 영록을 초청하여 헬링콘서트 마련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원봉사 유공으로 김신한씨(장항봉사회) 외 12명이 서천군수 표창, 임수현(서천여자정보고학원) 외 1명이 서천교육장 표장을 받았으며, 22명의 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 인증서와 골드배지를 수여했다.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의 책임자로서 힘들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도록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계룡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28~29일 건조벼 247톤 매입…전년 대비 5.9% 증가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목)는 오는 28일과 29일 2회에 걸쳐 엄사농협창고(논산계룡농협 계룡지점)에서 2017년산 공공비축용 건조벼 247톤(6170포대/40kg)을 매입한다.

올해 계룡시의 정부 공공비축용 미곡 매입물량은 6,170포대(40kg)로 지난해 5,391포대(40kg) 대비 5.9% 증가한 수준이다.

매입 곡종은 삼광벼와 새누리벼 2개의 품종으로 출하시에는 수분함량이 13~15% 이내여야 하며 13% 미만일 경우에는 2등급 낮춰 합격 처리될 수 있다.

매입대금은 내년 1월 중 통계청이 조사한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한 최종 매입가격을 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건조벼 출하 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분함량을 13~1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벼 정선 등 품질관리도 잘 해야 한다”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일정에 맞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공공비축미곡 매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농림과(042-240-2652)와 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공비축제도는 양곡식량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해 정부가 일정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로써 기존 쌀수매제가 폐지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함께 지난 2005년도에 도입됐다.

서천 군사교차로 진출입로 공사 시행

보령·부여 방향에서 서천특화시장 진입 차량 통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2일부

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국도4호선 장항생태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공사 서천군사교차로 진출입로

공사로 인해 서천특화시장 방향 진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서천특화시장 방향 차량 진입이 통제됨에 따라 보령, 부여 방향에

서 진입하는 차량은 오석사거리(국

제주유수 사거리) 또는 신영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군산, 장항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공사를 위해 차량통제가 불가피하다”면서 “공사구간 통행시 서행,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통일역량강화 연수 실시

자유학기제 청소년의 통일역량강화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수 진행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관

장 윤여승)은 행복천안 자유학기제‘21세계체험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21일 ‘자유학기제 청소년의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프

로그램 개발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관내 교사, 청소년지도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통일

장 방문 및 질의응답 등을 체험했다.

윤여승 관장은 “이번 연수에 참가한 지도자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중요성이 전해질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구본성기자

동 정

11월 도솔아카데미



구본영 천안시장= 23일 오전 11시 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 총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 2시 봉서홀에서 개최되는 11월 도솔아카데미에 참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



황명선 논산시장= 23일 오전 9시 50분 논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에 참석.

계룡시체육회임시이사회



최홍목 계룡시장= 23일 오전 11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계룡시체육회임시이사회 참석.

정책동행(同行) 현장즉답



노박래 서천군수= 23일 오전 11시 비인청송회관에서 열리는 비인학교 기로연에 참석하고 오후 1시 30분 종천면 당정1리 마을회관의 2개소에서 열리는 군민과 함께 하는 정책 동행(同行) 현장즉답에 참석.

굿뜨래 장학회 이사회



이용우 부여군수= 23일 오전 11시 부여군 브리핑실에서 열리는 제28차 굿뜨래 장학회 이사회에 참석.

대한민국 e-마케팅 폐어 7년 연속 ‘대상’

부여군, 연간 30억 이상 판매실적 올려

부여군 굿뜨래가 ‘제9회 대한민국 e-마케팅 폐어’에서 지역활성화 부문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와 주야베이코리아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e-마케팅 폐어는 전국 지자체 및 생산자의 우수한 온라인 홍보·판매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의 우수사례를 심사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지역벤처로 지난 22일 et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자체 포함 총 14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고의 영예인 지역활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부여군 굿뜨래는 그동안 수상했던 우수특산물, 농식품 부문 대상에 이어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지역활성화 부문은 온라인마케팅, 브랜드홍보, 고객만족도 세 가지 항목의 성과를 평가하여 온라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심사했는데, 굿뜨래는 세 항목 모두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식품을 넘어 지역활성화 부문까지 섭렵해 다시 한 번 저력을 과시했다.

현재 굿뜨래 농식품은 굿뜨래장터를 비롯해 오픈마켓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등에서 연간 30억 이상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굿뜨래 사용 승인조직 온라인 판매 택배비 50% 지원, 대형 온라인쇼핑몰 내 굿뜨래 농식품 프로모션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으로 인지도와 판매율을 높이고 있다.

군은 최근 오프라인을 통한 농식품 매출 증가는 눈에 띄고 있는 반면, 온라인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 고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여=이정복기자

정

공감 토크콘서트



오시덕 공주시장= 23일 오전 11시 종회의실에서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주관하고 오후 2시 농업회관에서 열리는 이·통장과 함께하는 시정 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

만세보령 장학회 이사회



김동일 보령시장 = 23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만세보령 장학회 이사회, 오후 6시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사협회 체육대회 참석.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이완섭 서산시장= 23일 오전 7시 30분 서산여고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시되는 곳을 돌며 수험생을 격려, 오전 10시 충남웨딩컨벤션에서 열리는 노인지도자 간담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에 참석, 오전 10시 30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량지표 최종실적 점검보고회에 참석, 오후 3시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과목별 전략학습법 및 대학 입시 설명회에 참석, 오후 5시 시립도서관에서 열리는 시립도서관 운영 위원 위촉식에 참석, 오후 6시 30분 서산문화박물관에서 열리는 어린이집 원장 실무교육에 참석.

역시문화박물관 전시용역 보고회



박동철 금산군수= 23일 오전 9시 상황실서 열리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17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공주시, 우수기관 인증 현판 걸려… 민원시책·민원서비스 등 종합적 평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1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식을 가졌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민원실의 환경과시설, 민원시책, 민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초자치단체 중 공주시를 포함한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지난 20일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기관표창과 함께 '국민행복민원실' 인증패를 받았다.



이로써, 시는 그동안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민원실 환경개선, 친절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힘써 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함께하는 참여시정'을 시정목표 중 하나로 내걸고 매주 수요일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공

무원이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

또한, 민원사무팀원, 시각장애인 접촉자, 차량등록 안내책자,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 책자, 전입자를 위한 공주안내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해 민원편의를 제공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목요 야간 민원서비스' 운영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원실 내부는 테마별 헬링공간을 조성해 실내 미니정원, 북카페, 계룡산 도예촌 분청사기 전시, 흑미진진 갤러리(그림·사진·시화전시), 건강죽집코너 등 감동과 행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왔다.

오시덕 시장은 "앞으로도 내 집 같이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행복민원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서산시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실시

공중화장실·게이트볼장 등 다중이용시설 96개소 대상



서산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주시 AI 확산 방지 총력 대응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에서 고병원 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과 긴급방역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AI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21일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서는 철저히 방역하는 한편 방역에 취약한 고병농가와 소규모 닭·오리 사육 농가 등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금류 관련 차량의 주진출입로인 우성면 목천리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시로 출입하는 차량들을 철저하게 소독할 방침이다.

공주시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오종서 담당은 "가금류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주들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AI 조기종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으로 AI 철통방역 이어간다

보령시,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

보령시는 전북 고창지역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농림축산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며 올해에도 철통방역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1일 오전 김동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총괄, 방역통제, 살처분 및 소독실무 등 7개반을 편성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발생지역 경과 및 현재 상황, 향후 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일 시장은 "AI가 확산되지

않고, 앞으로 있을 바이러스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상시 예찰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AI가 발생되지 않아 청정보로 이를 막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 및 단기 근로자를 3교대로 투입해 소독차량을 활용한 가금농가 순회 소독을 강화하고, 각 실무반에서는 24시간 상황유지 체계 전환 및 매일 오전 상황점검회의로 방역추진 일별 처리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해나가기로 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우리/동네

공동주택방법·소방안전·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금산군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



금산군은 지난 21일 다목적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관내 8개 단지 의무관리 공동주택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정석과장의 방법교육과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한승철 주임의 소방안전교육에 이어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장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가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법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과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례 및 관계법령 등을 설명해 이해도를 도왔다.

군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대규모 및 노후화 등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이 갑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 및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장 동력 확보 시민공청회 개최

서산시 내년 상반기 중 확정

서산시가 미래 도시발전의 브로드맵 수립을 위한 고민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오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2030년의 시 미래비전과 분야별 전략 등을 담은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이 전략은 '환경해권의 히브로(HUBRO), 힘차게 움비는 서산'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개발 ▲도로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체육 ▲공간환경 ▲보건복지 등 7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분야별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이 공청회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윤주선 한양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보희 시의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참석한 시민들이 전략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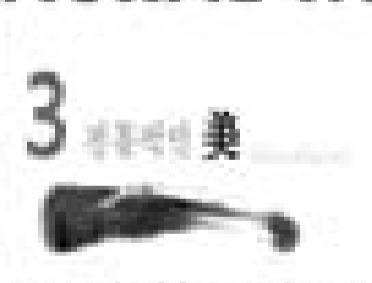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보완한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산의 미래 청사진이 담긴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의 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돼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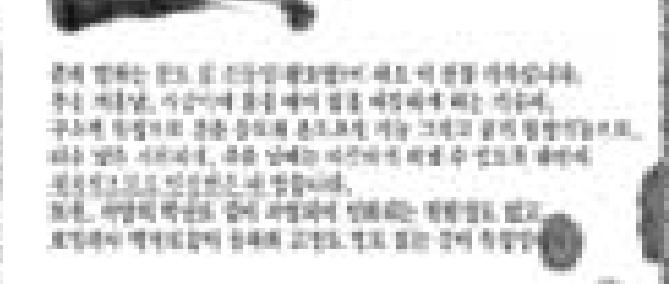
서산=김정한기자

현대식 전통 가옥

MODERN TRADITIONAL HOUSES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정취와 현대적인 디자인



TV: 오늘의 하이라이트

▶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달님이 행복해지길 빌며 놓아주기로 한다. 고민이 많았던 달님은 결국 재욱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주위 사람들의 촉하를 받는다. 한편 정훈에게 도피자금을 빼으려다 실패한 유경과 세나는 식당 사무실에 숨겨뒀던 비상금이 생각나 찾으려 가는데...

▶ 돌아온 복단지 (MBC 오후 7시15분)



근신 처분을 받은 흥주(윤디영)는 태숙(김민희)의 잔소리를 피해 외출을 하고,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미령(조은숙)과 만나게 된다. 미령은 스카프를 둘러주겠다며 흥주를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흥주는 그곳에서 보건진소를 그만두고 관사에서 돌아온 윤재송(원석)과 마주친다.

▶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20분)

재욱은 다시 시작하자며 달님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달님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기다리겠다고 한다. 선호는 달님에 대한 마음정리가 쉽지 않지만

혼자 안죽어요. 다음은 박서진이야...!
경찰서 앞에 선 제인(최대훈)과 서진(송선미), 제인은 감춰둔 비밀을 말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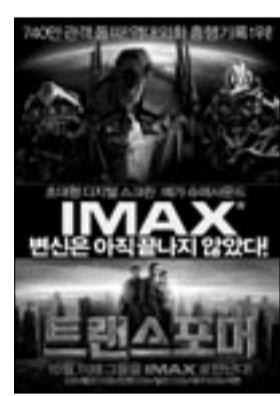
케이블 명화

▶ 트랜스포머 (OCN 오후 4시30분)

인류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능과 피워를 지닌 외계 생명체 '트랜스포머'. 정의를 수호하는 '오토봇' 군단과 악을 대변하는 '디셉티콘' 군단으로 나뉘는 '트랜스포머'는 궁극의 에너지원인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 오랜 전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행성 푸발로 우주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큐브'. 그들은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큐브'를 찾아 전 우주를 떠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원인 '큐브'는 우주를 떠돌다 지구에 떨어지고 디셉티콘 군단의 끈질긴 추적 끝에 '큐브'가 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들은 최후의 전쟁의 두대로 지구를 택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구로 임입한다. 어떤 행성이든지 침입해 그 곳에 존재하는 기계로 변신,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는 트랜스포머는 자동차, 헬기, 전투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신해 인류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다. 그리고 그들은 큐브의 위치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열쇠를 지닌 주인공 '샘'의 존재를 알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권태남(권태남) 원철(손미연) 애, 7년차, 스타 쉐프 원철(옥택연)과 네일 아티스트 소미(이연희)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오래 사귀었으니까!
"그녀와의 밤이 두려워..." 국제남(국제남) 건호(김민기) 카. 순수한 꽃집 노동가 건호(마동석)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절세미녀 비카(구걸) 국경과 나이도 초월한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건호의 몸에 찾아온 이상징후!

"이 결혼 절대 못해!" 충돌남(김민기) 대복&이라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LTE급 속도로 진행 중인 '파파결' 이라고(정현희)와 '마마보이' 대복(이희준) 그러나 결혼은 현실! 혼수준비, 신혼여행, 종교, 집안문제까지 달라도 너무 다르다!



▶ 결혼전야 (채널CGV 오후 10시30분)

결혼 7일전,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해야 할 순간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너의 과거가 나를 미치게 해!" 과거남
녀 태규(김민기) 한 번 헤어진 후 다시 만난 전직 야구선수 태규(김강우)와 비뇨기과 의사 주영(김효진) 결혼식 일주일 전, 서로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되다!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권태남(권태남) 원철(손미연) 애, 7년차, 스타 쉐프 원철(옥택연)과 네일 아티스트 소미(이연희)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오래 사귀었으니까!

"그녀와의 밤이 두려워..." 국제남(국제남) 건호(김민기) 카. 순수한 꽃집 노동가 건호(마동석)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절세미녀 비카(구걸) 국경과 나이도 초월한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건호의 몸에 찾아온 이상징후!

"이 결혼 절대 못해!" 충돌남(김민기) 대복&이라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LTE급 속도로 진행 중인 '파파결' 이라고(정현희)와 '마마보이' 대복(이희준) 그러나 결혼은 현실! 혼수준비, 신혼여행, 종교, 집안문제까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케이블 & 위성 방송

▶ YTN 02398-8000 ▶ 스키아이파 1588-3200

▶ 한글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 OCN

5:10 타투
7:00 터미네이터 3
9:0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2
11:00 NCIS:LA 시즌8
13:00 블랙
16:30 트랜스포머
19:30 트랜스포머 2: 패자의 역습
22:30 트랜스포머 3

◆ 채널 CGV

5:30 별다리는 현대사
7:00 애나벨
8:30 블랙
11:00 재심
13:30 퍼사센스 반개 도록
16:00 빅 게임
17:50 포인트 브레이크
20:30 인디애나 존스 4: 크리스탈 해골 왕국
22:30 결혼전야

◆ Mnet

7:40 WANNA ONE GO: ZERO BASE
9:1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10:10 더 미스터 – 음악의 공조
11:40 프로젝트 S: 악마의 재능
13:00 MPD Music Talk (SNS/미신자)
14:10 f(x)의 밤
15:20 WANNA ONE GO: ZERO BASE
17:00 Daily Music Talk (SMS)
18:00 MCOUNTDOWN
19:30 Live on M (SMS)
20:40 f(x)의 밤
21:4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 MBC 스포츠플러스

9:00 2017 알미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11:00 <당구스페셜> 2017 세계 팀 3구선수 선수권 대회 결승
13:00 2016 리우올림픽 여자 배구 예선
15: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 트랙 하이아이트

◆ SBS 스포츠

10:05 17~18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하이아이트
12:05 2017 LG U+배 3구선 마스터스
13:35 17~18 도드람 V-LEAGUE 최고의 세트
14:00 17~18 시즌 대한민국 소트 트랙 에이스

◆ 온스타일

7:00 컷잇뷰티 2017
8:20 깨줄남녀
9:20 아름의 팩트 폭격 시즌2
9:50 변혁의 사랑
11:00 변혁의 사랑
12:30 컷잇뷰티 2017
13:30 미생
14:50 미생
16:10 오전자리의 여신들
18:00 바디 액츄얼리
19:00 경기뷰티 2017
20:10 뜨거운 사이다
21:30 뜨거운 사이다
22:50 뜨거운 사이다

◆ YTN

8:00 뉴스특보
10:00 뉴스특보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율의 시사통당
20:15 YTN 24
21:00 YTN 국민신문고

◆ 한국경제 TV

6:00 금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830
10:00 증시리포트 10
12:00 재테크, 일어나면
13:00 증시리포트 13
15:40 부자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강의주식 시구풀구
21:00 대박 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원
12:15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을
12:45 도시의 밀쓰끄러기, 리문
13:45 맨인 블랙박스
14:4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15: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00 치링차팅 시크릿 쿠주 11기
18:00 포켓몬스터 XY
19:45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을
20:10 뜨거운 레오
20:1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1:0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2:50 뜨거운 레오

◆ MBC 뮤직

8:10 2017 MMA 아티스트 TOP10
8:40 무한도전
10:10 라디오스타
11:30 나혼자 산다
13:00 2017 MMA 아티스트 TOP10
13:30 MBC MUSIC HIT SONGS
14:00 주간 아이돌
15:00 세상의 모든 방송
16:30 아이돌TV

◆ 애니맥스

7:00 파워래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태양마리드 W 시즌4
9:00 꼬마바스 타요4
10: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2
11:00 레인보우 루비
12:00 몬스터 vs 애일리언
13:00 마음의 소리
14:00 인생 고별기발
15:00 아울은 너무 이상해
16:00 타오르는 미니마버스터
17:00 포켓몬스터 캠룬
1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터

◆ JEI 재능방송

6:00 유희왕
7:00 파워래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파워캐치 원다파! 2
9:00 퍼피구조대 시즌2
12:20 컷잇뷰티 2017
13:00 변신자등차 놋보 12기
11:00 출동! 슈퍼윙스
12:00 세서미 스트리트-엘모더
16:15 TV 등을 등장
18: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비단을 무서워하는 개 미키 위험
한동, 베로와 레오
19:45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을
20:10 뜨거운 사이다
21:30 뜨거운 사이다
20:1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1:4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2:50 뜨거운 사이다

◆ YTN

8:00 뉴스특보
10:00 뉴스특보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율의 시사통당
20:15 YTN 24
21:00 YTN 국민신문고

◆ JEI 재능방송

6:00 유희왕
7:00 파워래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파워캐치 원다파! 2
9:00 퍼피구조대 시즌2
12:20 컷잇뷰티 2017
13:00 변신자등차 놋보 12기
11:00 출동! 슈퍼윙스
12:00 세서미 스트리트-엘모더
16:15 TV 등을 등장
18: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비단을 무서워하는 개 미키 위험
한동, 베로와 레오
19:45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을
20:10 뜨거운 사이다
21:30 뜨거운 사이다
20:1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1:4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2:50 뜨거운 사이다

◆ 온스타일

7:00 컷잇뷰티 2017
8:20 깨줄남녀
9:20 아름의 팩트 폭격 시즌2
9:50 변혁의 사랑
11:00 변혁의 사랑
12:30 컷잇뷰티 2017
13:30 미생
14:50 미생
16:10 오전자리의 여신들
18:00 바디 액츄얼리
19:00 경기뷰티 2017
20:10 뜨거운 사이다
21:30 뜨거운 사이다
22:50 뜨거운 사이다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원
12:15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을
12:45 도시의 밀쓰끄러기, 리문
13:45 맨인 블랙박스
14:4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15: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비단을 무서워하는 개 미키 위험
한동, 베로와 레오
19:45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을
20:10 뜨거운 사이다
21:30 뜨거운 사이다
20:1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1:4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2:50 뜨거운 사이다

◆ 온스타일

7:00 컷잇뷰티 2017
8:20 깨줄남녀
9:20 아름의 팩트 폭격 시즌2
9:50 변혁의 사랑
11:00 변혁의 사랑
12:30 컷잇뷰티 2017
13:30 미생
14:50 미생
16:10 오전자리의 여신들
18:00 바디 액츄얼리
19:00 경기뷰티 2017
20:10 뜨거운 사이다
21:30 뜨거운 사이다
22:50 뜨거운 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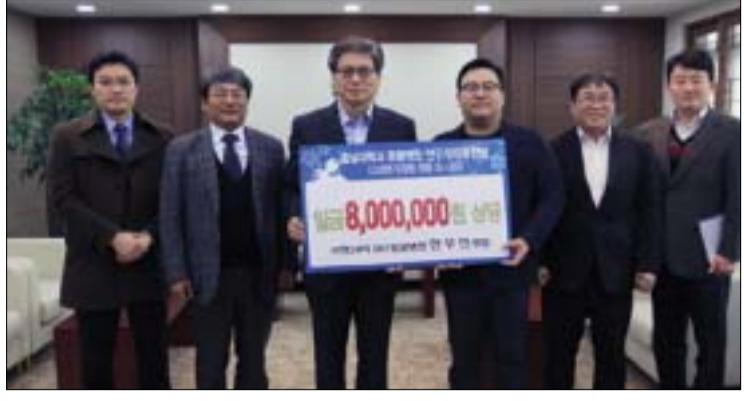
◆ 온스타일

7:00 컷잇뷰티 2017
8:20 깨줄남녀
9:20 아름의 팩트 폭격 시즌2
9:50 변혁의 사랑
11:00 변혁의 사랑
12:30 컷잇뷰티 2017
13:30 미생
14:50 미생
16:10 오전자리의 여신들
18:00 바디 액츄얼리
19:00 경기뷰티 2017
20:10 뜨거운 사이다
21:30 뜨거운 사이다
20:1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1:4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2:50 뜨거운 사이다

◆ 온스타일

7:00 컷잇뷰티 2017
8:20 깨줄남녀
9:20 아름의 팩트 폭격 시즌2
9:50 변혁의 사랑
11:00 변혁의 사랑
12:30 컷잇뷰티 2017
13:30 미생
14:50 미생
16:10 오전자리의 여신들
18:00 바디 액츄얼리
19:00 경기뷰티 2017
20:10 뜨거운 사이다
21:30 뜨거운 사이다
20:1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1:45 <세계 테마 기행> 하늘길
22:50 뜨거운 사이다

◆ 온스타일



부천24시SKY동물병원 천우진 원장, 충남대에 발전기금 기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부천24시SKY동물병원의 천우진 원장이 충남대 동물병원에 연구기자재를 기부했다. 천우진 원장은 22일 오후 3시, 오덕성 총장을 방문해 충남대학교 동물병원에 800만원 상당의 '무영동(동물 수술실에서 쓰는 전등)'을 전달했다. 천우진 원장은 대학원 수의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공주대, 대전·충청권 지역 대학생 연합 취업캠프 개최
공주대학교(총장 직무대리 김희수) 취업지원실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현대해상 연수원에서 대전·충청 지역 8개 대학 대학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주대학교 유니 플러스(UNI+)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온양1동 새마을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펼쳐
아산시 온양1동 새마을 남·여협의회(회장 이영호, 부녀회장 안예숙, 이하 새마을)는 지난 20일부터 21 일까지 2일에 걸쳐 지역 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한남대 제1기 린튼 제로헝거 SNS 유스코디네이터 발대식
한남대(이덕훈 총장)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이 <제1기 린튼 Zero-Hunger SNS 유스코디네이터(단장 김운수)발대식>을 갖고 세계기아 종식에 앞장섰다.



롯데, 나라사랑 보금자리에 3억 쾌척
롯데가 남다른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강원재단은 22일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지원기금 3억원을 육군본부 통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했다.



청양군 남양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청양군 남양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강성구, 조병록)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동절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배재대학교 구성원, 지역대학 최초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부 캠페인

배재대 주시경교양대학(학장 심혜령 교수) '인성과 예(禮)티켓' 교양강좌 수강생 60여명은 20일부터 캠퍼스 곳곳을 다니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사)도덕토닥 재단과 30일까지 '11일간의 기적의 새싹 캠페인'을 통해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대학 최초로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기적의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배재대 학생과 교직원이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아픈 어린이들이 두 발(11)로 씩씩하게 뛰어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선 11일간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에 터를 잡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지어져야 한다는 게 학생들의 목소리다. (사)도덕토닥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9세 이하 장애인은 9만여 명으로 이중 3000여



[사진설명] 배재대 '인성과 예(禮)티켓' 수강 학생들이 20~30일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11일간의 기적의 새싹 캠페인'을 진행 중인 가운데 22일 김영호(가운데) 총장도 기부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명이 대전 시에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아동은 60%나 차지하고 있고 10세 이하 뇌병변장애아 비중은 다른 장애유형보다 절차 이상 높다.

장애 발견 후 진단까지 소요 기간이 평균 23개월이 걸려 적기 재활치료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재활병원은 서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대전 방문 중 뇌병변 1급 중증장애아인 김건우(10) 군을 만나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약으로 이어졌다.

배재대 '인성과 예(禮)티켓' 수강 학생들은 교내에서 플래카드와 안내용 명함을 활용해 1건당 3000 원의 문자기부를 받으며 캠페인을 벌인다. 기부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54079' (이웃사랑친구)에 응원문구를 적어 간단하게 이뤄진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샷 파도타기 릴레이 이벤트도 함께 펼치고 있다.

김영호 배재대 총장도 22일 캠페인 현장을 찾아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사회참여가 눈에 띄게 많았지만 대학 내 기부문화까지 창달되고 있다"며 "많은 구성원이 기부의 선순환에 동참해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힘을 보였으면 한다"고 독려했다.

이정복기자

●동정 ● ● ●

대전시예선대회 시상식



박경수 새마을문고 대전시지부 회장 = 23일

오후 2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수상자 및 새마을문화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대통령 제37회 국민독서경진 대전시예선대회 시상식을 개최.

금강대 회계학과 이선구

학생, 제54회 세무사 합격



김경호 대학교 회계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이선구 <사진>씨가 국세청에서 치르는 제54회 2017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한 이선구 씨는 "전문직자격증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도전을 하게 되었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는데 잘 견뎌내어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지도 편지를 아끼지 않았던 교수님과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금강대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스터디룸 제공, 특별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 지원 등 입체적인 교육 및 장학지원체계를 갖추고 세무 및 회계사반, 관세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호서대 진승현 교수, 대학

영화제 총괄 집행위원장



호서대학교(총장 신대철)는 영상미디어전공 진승현 교수가 최근 성료한 제12회 대한민국 대학영화제'에서 총괄 집행위원장에 맡았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학영화제'는 전국 대학생 및 영화영상관련 대학생들이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휘해 만든 영화를 통해 상호교류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여 한국영상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반 관객들과 함께 생명 나에게 어우러지는 축제 형식의 영화제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개최되었고, 총괄 집행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호서대 진승현 교수가 맡았다.

이번 대회는 총 35 작품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 관객상에 서울에대 김상현 감독의 '스파크맨', 심사위원특별상은 한국영상대 '미사', 작품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아름 감독의 '록온', 영예의 대상은 중앙대 신기연 감독의 '겨울은 겨울'이 상금 1000만 원의 부상과 함께 수상했다.

이선구=리량주기자



새마을지도자유성구협의회 산하 전민동협의회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 펼쳐



새마을지도자유성구협의회 산하 전민동협의회는 23일부터 4일간 새마을지도자 5명이 틀틀이 시내내어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을 펼친다.

전민동협의회는 어렵게 사는 노인세대를 방문해 녹슨 대문과 지붕,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고, 주변 정리 정돈, 전기배선 상태 확인, 칭고정리

및 보수 등 어르신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찾아 현집을 보수해 준다.

고령식 전민동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법을 부리듯 깨끗하게 변해가는 모습과 어르신들의 미안하면서 감사한 눈길이 새마을 이웃공동체 활동의 첨단"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덕SWマイ스터고 최부영 교장

SW산업 발전 유공자 대통령 표창



한영재를 기위낸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대덕소프트웨어マイ스터고는 2015학년도 4.6대1, 2016학년도 4.3대1, 2017학년도 2.7대1의 입학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으며, 합격한 학생들의 평점은 5점 척도에서 4.5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수업방법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근간으로 하며, 교실에서의 모둠식 책상배치를 통하여 모든 교과목에서 프로젝트식 수업, 토론식 수업, 상호 멘토링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신입수요 및 출형 인재양성을 위한 한업체 연계활동으로 전교생이 참여해 외부전문가와 연결된 동아리 활동, 기업체 연계된 실전프로젝트 수행,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대회 참여 등에서 수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정복기자

인지에이엠티·인지에이원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 진행

당진 부곡공단에 있는 인지에이엠티·인지에이원(대표 이원환)은 지난 22일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한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지역이동센터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민들과 상생하고 있다.

인지에이엠티·인지에이원 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뢰와 존중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민과 상생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치한 자동차 엔진부품 및 일로이 허 전문 제조업체로, 2014년부터 매년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지역이동센터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민들과 상생하고 있다.

인지에이엠티·인지에이원 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뢰와 존중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민과 상생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고덕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사랑의 쌀·김치 나눔 행사 개최

고덕면행정복지센터(면장 구본학)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고덕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구정숙, 정영숙)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덕면 새마을회관에서 사랑의 쌀 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덕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따뜻한 온정을 담아 경로당(32개소) 및 독거노인(15명)에게 김장김치(500포기)와 쌀50포(20kg)를 전달했다.

정영숙 회장은 "내 기족을 위하여 마음으로 정성껏 김장을 담갔고 김장을 넉넉하게 드리진 못하지만 겨울나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따뜻한 온정을 담아 경로당(32개소) 및 독거노인(15명)에게 김장김치(500포기)와 쌀50포(20kg)를 전달했다.

정영숙 회장은 "내 기족을 위하여 마음으로 정성껏 김장을 담갔고 김장을 넉넉하게 드리진 못하지만 겨울나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기고

소방차 골든타임은 길 터주기



신홍섭
대전중부소방서장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금쪽같이 귀중한 시간' 골든타임!

미국의 외과의 사이자 응급응학의 개척자인 애덤스 카울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 골든아워가 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된 생명이 달려있는 시간!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순간이다.

화재의 초기대응이나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는 최초의 5분!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출동이 필요 하지만, 소방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 및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소방통로 확보훈련, 언론 및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현대인에게 필수품인 자동차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 월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은 2,237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및 주택가 등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출동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다.

더욱이 2011년 12월부터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 단속 건수는 2013년 98건에서 2015년 368건을 대폭 증가하였다.

2014년 모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심장이 뛴다'라는 예능프로그램 이후 시작된 '모세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양보차량도 많이 늘었으나, 외국의 사례를 비춰보거나, 실제 출동 중 정체 이유를 보면 우리의 인식이 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모세의 기적!

도로를 기득 메운 차들이 홍해의 바다에 갈라지듯 소방차 길을 베어주는 양보 운전 방법은 어렵지 않다.

▲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 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 자리에 일시정지

▲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 자리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긴급차량 1차선 통행)

▲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긴급 차량 2차선 통행)

▲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소방차가 출동하는 그 순간 기적은 길 위에 있고, 그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만성질환 관리 강화해야

863%로 OECD 평균(63.0%, 85.0%)보다 높았다.

특히 직장암의 순생존율은 71.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자 '환자의 외래 진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81.8%,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느끼는 비율은 77.9%로 나타났다.

의사의 설명을 쉽게 이해한 비율은 87.1%, 궁금한 사항이나 걱정을 말할 기회를 받은 비율은 81.7%로 조사됐다.

하지만 만성질환 관리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 중 천식과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병의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각각 945명, 214.2명, 281.0명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의료당국은 만성질환 관리에 민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재 키우려면



이재호
경인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놀라운 뉴스거리가 아니다. 아마존이 아침차게 운영 중인 오프라인 상점 아마존고(Amazon Go)에서는 인간 직원이 하던 모든 일들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처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원의 일상업무를 대신해주는 빗봇, 투자전문가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올린 투자봇, 스포츠 게임에 대한 기사를 대신 작성해 주는 기자봇, 천재 비디오 기사를 상대하여 승리한 알파고 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사회 일자리걱정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한다. 지난 3 번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인간 삶의 질(質)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은 4번째의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도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기는 하나,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절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재는 누구인가?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인성 역량'을 기본으로, 컴퓨팅사고력 기반의 '전문지식 역량'을 발휘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메이킹 역량'을 활용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 기반의 '창의융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재로 정의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전제 조건은 법적인 지원체제다. 디행스 법규도 2017년 9월 28일에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주춧돌은 마련한 셈이다. 이제는 법적인 지원체제에서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신경나게 공부할 수 있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재는 누구이고, 이들을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4 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되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선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를 CORE(Creative Optimization of Resourceful Entertainment)라 정의하였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될 요소가 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소프트웨어 코딩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 코딩 기반의 CORE 교육인 SCORE(Software coding based CORE)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코딩 기반의 CORE 교육 시행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공감하는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감 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공정회, 포럼,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이벤트 개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4차산업' 진출 몸사리는 답답한 현실

국내 기업 가운데 신사업에 진출하는 곳이 전체의 1.9%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1만2,4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어떤 형태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 기업은 23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주력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바꾼 기업도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우리 산업체가 신사업 진출에 몸을 사리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뛰어든 기업이 81곳으로 전체의 0.65%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진출기업도 바이오나 빅데이터 수준에 머무를 뿐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의 현실인수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도 문제다. 매출은 4년째 제자리걸음 을 면치 못한 채 비용축소에 주력하며 이운을 넘기는 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축소지향

의 경영구조로 앞선 글로벌 경쟁기업을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정부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서 "우리 경제가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주체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투자위축으로 끌어미를 써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규제를 없애고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에 따라 엇갈릴 뿐이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AI 국가대표드림팀을 구성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키우겠다고 나섰다. 일본에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을 외칠 뿐 매일같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언제까지 정부와 손발을 맞춰 신사업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을 부러워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이다.

행복도시,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 착공



활용하여 건축물마다 에너지 효율등급 1++ 등급 구축 ▲단지 내 우수를 활용한 자조생태 순환체계 구축 ▲차량통행 최소화 및 생태체계와 연계된 보행네트워크망 등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수립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는 주택 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출자금과 민간 자금으로 설립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선임대 후분양' 방식의 4년 간 임대 후 분양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임대료는 인근의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는 주택 구입비와 냉난방 등 유지 관리비 부담 등을 줄인 보급형 친환경 주택단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행복도시가 친환경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운동(1·2생활권)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의 임대공고 시기는 2017년 12월 말이며, 지원 자격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 기자

기고

'공유지(共有地)의 비극(悲劇)'을 막으려면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경제학 용어를 경제학자가 아닌 환경론자인 '케릿 하딘이 1968년 사 이언스라는 잡지에 기고한 짧은 논문에 언급된 내용으로 그 내용을 보면, 주변에 주인이 없는 공유지에 별도의 제한이나 제재 없이 소를 몰고나와 풀을 듣게 한다면 모든 목장주인들이 자신의 소를 끌고나오게 되고 공유지에 소들을 기록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그렇다면 두려운 것은 무엇이고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두려움의 핵심은 '일자리 걱정'이다. 미래에는 사람들은 차리하던 일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로봇들이 대신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인재 양성'에 대한 준비

하게 사용한다면 결국 공유지의 풀과 같이 고갈되어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우리 경찰에서 보면 이 용어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는 우리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가 이와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현재 각종 범죄 및 인명 구조, 교통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평온 등을 해하는 행위를 우리 경찰에서는 '112'라는 신고전용번호로 접수하여 수출처 및 각 협사, 강력, 여성, 교통기능 등을 통하여 종별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찰이 제공하는 공공재인 치안서비스를 무작정,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순기능보단 역기능을 가져오는 원인이 있으나 비로 허위오인, 장난신고, 전화일 것이다.

이런 공유지의 비극이란 용어는 비단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시사용어일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나 차지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 즉 공공서비스는 사용료를 지불치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인데 이런 공공재를 무료라고 미구분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 그 신고처리 시간에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다른 신고자가 경찰의 신고출동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아찔할 뿐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는 허위, 장난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 강력한 형사처벌 및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신고사건 내용에 따라 코드분류를 실시하여, 신고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이 현저한 경우 Code01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해야 할 경우는 Code2로, 당일 업무시간 내 처리가능한 신고에 대해서는 Code3로, 단순상담, 처리로서 안내 등 비출동 신고는 Code4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신고접수 처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치안서비스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현상이 발생치 않기 위한 우리 경찰의 대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공공재인 치안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이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E-mail: d-mail@hanmail.net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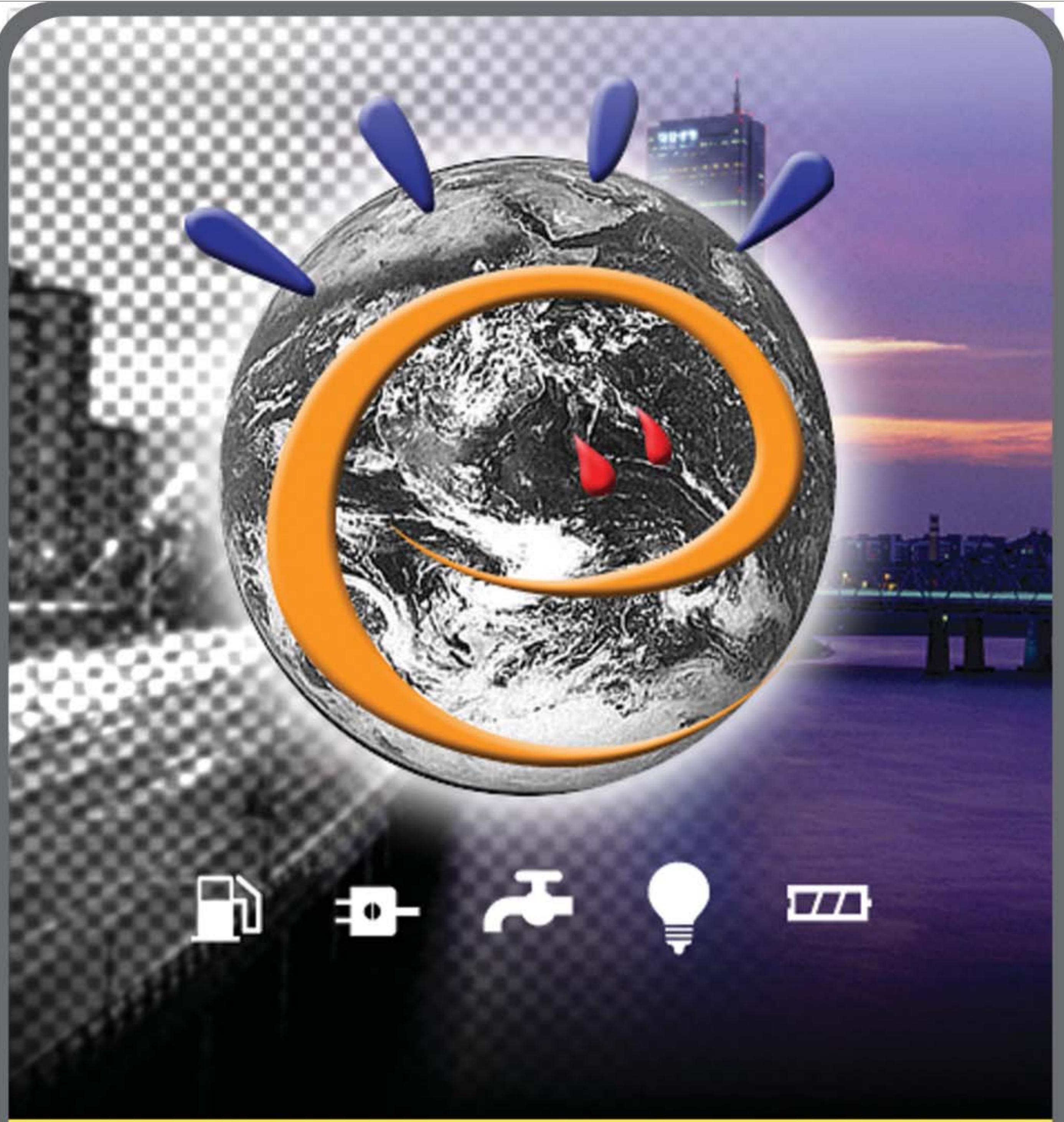
시사용어 중에 '공유지(共有地)의 비극(悲劇)'이라는 용어를 들어보거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공유지의 비극은 특이하게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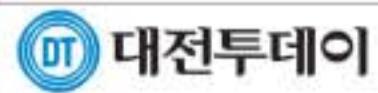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동 63-2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td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주 관 |



후 원 |

